

2026 오월문예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오월광주의 도시정체성을 묻다

일시 2026. 7. 23.(목) 15:00~17:30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

주최·주관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



오월문예연구소

오월광주의 도시정체성을 묻다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15:00~17:30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

주최·주관 5·18기념재단, 오월문예연구소

차례

주제 1 이행기 정의와 오월문학

- 06 발표문 이행기정의와 오월소설
김형중_ 문학평론가, 조선대 교수
- 26 토론문 '이행기정의와 오월소설'이 제기하는 문제들
정양주_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 30 「이행기 정의와 오월소설」에 대한 토론
정명중_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주제 2 광주 도시정체성으로서 오월 문화예술

- 36 발표문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구도청,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민룡_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 53 토론문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구도청,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에 대한 토론문
김꽃비_ 문화기획자
- 58 동시대 광주, 오월의 현장들
김서라_ 미술평론가

주제 3 오월사적지 공간의 역사문화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

- 64 발표문 오월 사적지 공간의 역사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
전고필_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96 토론문 5·18사적지, 인권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개발 필요
조한이_ 동구문화관광재단 팀장
- 102 「오월 사적지 공간의 역사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엄수경_ 목요사진 대표

주제 1

이행기 정의와 오월문학



이행기정의와 오월소설

김형중_ 문학평론가, 조선대 교수

오월소설 멀리서 읽기

5·18이 올해로 벌써 46주기를 맞았다. 그간 지난한 오월(기억)투쟁을 통해 여러 한계들(특히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제한적 성과, 보훈체제 편입에 의한 여러 악영향들 등)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을 포함 세계적으로도 이행기정의 실현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 이면에 여러 단체와 인사들의 투쟁과 노력 외에도 사학,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된 학문적 담론의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학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 46년이 지나는 동안 이른바 ‘오월문학’이란 범주 하에서 호명되고 논의된 작품들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굵고 긴 계보 하나 짚은 그럴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학사적 계보는 기존 오월문학 담론들이 주로 기대온 작가론, 작품론, 주제론(‘꼼꼼한 읽기 close reading’)의 산발적 누적

만으로는 그리기 힘들다. ‘멀리서 읽기(distance reading)’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코 모레티를 참조할 만한데, 그는 ‘꼼꼼한 읽기’와 ‘멀리서 읽기’를 이렇게 대조시킨다.

기본적으로 꼼꼼한 읽기는 신학적인 활동 - 매우 엄밀하게 선별된 극소수의 텍스트들에 대한 극히 엄숙한 읽기 - 인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악마와의 작은 계약이다. 즉, 우리는 텍스트들을 읽는 방법을 안다. 이제는 텍스트를 읽지 않는 방법을 배우자. 멀리서 읽기 말이다. 반복하면, 여기서 거리는 지식의 조건이 된다. 거리는 텍스트보다 작거나 훨씬 큰 단위들에 초점을 두게 한다.¹⁾

그가 제안하는 것은 연구 방법상 ‘현미경적 관찰’에서 ‘망원경적 조망’으로의 이행이라 요약 가능하다. 멀리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 그제서야 지구 전체가 보이듯, 텍스트로부터 거리를 두면 들수록 텍스트‘들’이, 그것들이 맺는 장르적 유사 관계가, 그리고 장르들의 희망성쇠가 한눈에 파악된다. 대체로 사변적이게 마련인 여느 문학 이론가들과 달리, 모레티가 계량사회학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데카르트적 좌표 면에 그래프를 그려대는 괴이한 짓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보인다. 가령 그는 수평축에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00년 동

1) 프랑코 모레티, 『멀리서 읽기 - 세계문학과 수량적 형식주의』, 김용규 옮김, 현암사, 2021, p.74.

안의 시간을, 수직축에 시대별로 등장하고 사라졌던 수많은 군소 소설 장르들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렇게 하자 소설이라는 유 장르 내 하위 종 장르들이 어떤 시기에 나타나고 사라졌는지가 한눈에 파악 가능해진다.²⁾

오월문학에 대해서도 그런 멀리서 읽기가 가능할까? 몇 가지 난 점이 즉각 눈에 띈다. 일단 모레티의 작업이 작품사나 작가사가 아니라 장르사에 속한다는 점이 그 하나고, 그리고 다루는 시기가 소설이란 장르의 전역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그 둘이다. 그에 비하면 오월문학은 장르가 아니고, 그 역사는 고작 46년에 불과하다. 차라리 한국현대문학 120년의 역사를 하위 장르들(추리, 역사, 여행, SF, 멜로 등)의 흥망성쇠에 따라 멀리서 읽어보는 것이 모레티의 방법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래프 하나(혹은 둘)를 그려 보일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장점은 첫째, 오월문학사의 전체 흐름을 (최소한 양적으로나마) 개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기억투쟁 혹은 이행기정의라는 보다 커다란 맥락에서 오월문학의 시기 구분이 (당연히 정치사와는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한 채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함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비관적이건 낙관적이건 향후 오월문학의 전망을 추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 글 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채 늘

2) 프랑코 모레티, 『그래프, 지도, 나무 - 문학사를 위한 추상적 모델』, 이재연 옮김, 문학동네, 2020, pp.30~31.

어놓는 여러 모호함에 의해 오월문학의 범주, 장르 판단 여부, 오월문학사 서술 등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나마 ‘제안’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작업이 무모하기는 하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 정도는 가져볼 만하다.

오월소설의 범주

‘오월문학’이란 말을 반복해서 써왔거니와 이제 아래에서는 이 글의 한계에 따라 ‘오월문학’을 ‘오월소설’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다. 첫째 이유는 당연히 필자의 무능력 탓이다. 소설 전공인 데다 나태하기까지 한 필자로서는 ‘오월시’의 전체 흐름을 개관할 능력도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변명도 없지는 않은데, 시의 경우 서정 장르로서의 특성상 오월(정신)이 개별 시인의 정서나 시작품 속에 습합되어 ‘오월시’ 범주로는 구별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향후 오월문학사 서술에 있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가령 80년대 민중시와 오월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최하림의 시에 장기 지속하는 슬픔 속에서 5·18을 시기별로 추출해 내는 일이 가능할까? 기형도의 부끄러움에 대해 5·18의 죄의식은 구성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추후 필자 포함 오월문학 연구자들의 숙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겠다.

결국 이 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월소설’의 범주에 대체로 큰 이견 없이 포함될 만한 105편의 (장단편 포함) 작품들이다.³⁾ 왜 하

필 105편인지 묻는다면 (후술하겠지만 ‘오월소설’은 연장실체 없는 대상과 같아서 그 범주의 경계가 항상 수행적이고 유동적이다) 궁색 하나마 이런 기준에 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기준은 당연히 수정과 보완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도 밝혀 둔다.

1. 소재, 작품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소재주의에 기반했다. 필자의 견해로 오월소설은 하나의 장르 범주일 수 없다. 장르 문학에는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조금씩 어겨야 할 특유의 ‘관습’이 제약이자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가령 ‘사건-실마리-추리-오류-재추리-해결’이라는 서사 관습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전제하지 않는 추리 소설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오월 서사에 그와 같은 장르적 관습을 요청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작 택시와 군용 지프의 아슬아슬한 추격전(영화 <택시 운전사>), 또는 폭력이 갈라놓은 슬픈 사랑 이야기(영화 <화려한 휴가>) 따위일 것이다. ‘본격 문학’(이상한 단어이지만)의 관습은 오로지 하나, 곧 ‘관습으로부터 멀어짐’이다. 그렇다고 장르적 관습에 따른 범주화를 피하기 위해 ‘오월소설’을 ‘오월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주제 의식을 기준으로 판별하려는 시도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한데,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5·18의 3대 가치)을 주제로 삼지 않은 문학 작품을 상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모

3) 이 자리를 빌려, 105편의 목록을 연대기별로 작성하고, 발표 지면과 출판처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조선대 김혜진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든 문학 작품이 오월문학이라면 오월문학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단순하고 동어반복적이지만 오월소설은 (이 글의 목적인 ‘논란’을 통해 더 훌륭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5·18을 주요 소재나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일컬을 수밖에 없다.

2. 기능. 한편 5·18이 주요 소재나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작품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본다.

용서해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다신, 그것의 눈에선 눈물 대신에 검푸른 체액이 호스의 물처럼 거세게 사방을 뿌려지고 있었다. 1980년의 일이었다. 그것의 푹 튀어나온 한쪽 눈알에서 그리고 눈알을 감싼 손가락들 사이사이로 마치 물총을 쏘듯 검푸른 체액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의 어머니가 핏물 웅덩이들을 호스로 씻어내고 있었다.⁴⁾

인용문은 그간 ‘오월소설’로서는 거의 거론된 바 없는 작품의 일부이다. 그러나 맥락과 무관하게 저 문장들만 떼어 놓고 읽을 때, 눈알을 뽑힌 그것의 이미지에서 5·18 당시 구타당하고 살해당한 누군가의 얼굴을 연상하지 않기는 힘들다. “1980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가는 반복적으로 198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연도만을

4) 백민석, 『태생들』, 『헤이 우리 소풍간다』, 문학과지성사, 2023, p.140.

지시하지 않음을 강조하는데, 가령 이런 문장들이 그렇다. “그것의 아버지가 무개 하수구에 떨어져 죽은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1980년이었고 무언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렵듯이 느끼기 시작하던 때의 일이었다.”⁵⁾ 그러나 그 어떤 문장들도 다 음의 문장만큼 그것들의 주체 형성 과정에 5·18이 뚜렷한 족적을 남겼음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아까 물댄동산에서 사람 살 썩는 냄새가 맡아진다는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 아저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살육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한 사회, 한 나라 구성원들 전체에 작용하는 훼손, 결핍이라고 늘 말하고 다니시지…… 살썩는 냄새, 이를테면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⁶⁾

작중 배경이 서울 인근 빈민촌이고, 주요 소재 또한 5·18과 무관하지만 저 주인공들의 주체 형성 과정 초입에 5·18이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저들의 평생이 좌우되었다면 저 작품은 오월소설이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계열에 속하는 작품은 의외로 적지 않은데 김승희(『아마도』⁷⁾), 김연수(『원더보

5) 같은 책, p.143.

6) 같은 책, 「슈퍼아빠 슈퍼엄마」, p.323.

7) 김승희, 『아마도』, 『소설과 사상』 1995년 여름호.

이』⁸⁾), 권여선(『레가토』⁹⁾), 황석영(『오래된 정원』¹⁰⁾)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3. 문학성. 그러나 가장 까다로운, 그래서 역시 논란이 될 만한 세 번째 기준이 있다. 이른바 ‘문학성’이 그것이다. 굳이 오월소설 관련 논의를 떠나서도, ‘문학성’이라는 근대 특유의 미학적 범주는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다. 주관적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권력지향적이기도 하고(이른바 문학장의 상징자본 소유자들이 그것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계적이기도한 것(‘본격/상업’, ‘중앙/지역’, ‘전문/아마추어’ 등의 위계가 바로 ‘문학성’이란 실체 없는 효과 주위에서 형성되므로)이 이른바 문학성이란 범주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로 문학성이란 기준을 포기할 때, 발생할 위험은 더 크다. 그레이엄 하먼의 말대로 ‘직서적’인(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장들의 더미를 문학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바로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유사문학’ 담론체와 문학 ‘작품’의 구분을 무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월소설의 문학성을 외딴 섬처럼 따로 고안해낼 수도 없다. 오월소설도 분명 ‘소설’이라는 장르, 곧 대문자 문학의 하위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시대 문학장에서 통용되는 ‘소설의 문학성’ 기준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문학 제도의 인준 과정’이 참고되어야 하는 것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8) 김연수, 『원더보이』, 문학동네, 2012.

9) 권여선, 『레가토』, 창비, 2012.

10) 황석영, 『오래된 정원』, 창비, 1999.

어쩔 수 없는 상수다. 오월소설의 목록 작성(이것이 유동적일 수 있음은 다시 강조하면서)에 있어 적절한(?) 등단 여부, 문학장에 의한 가치 인준, 발표 매체, 후속 작품에 대한 영향력, 작품의 담론 촉발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써놓고 보니 벌써부터 온통 논란거리 투성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한편으로 ‘오월문학’ 그리고 ‘오월소설’에 대해, 46년이 지나는데 동안 우리가 합의해 낸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개의 그래프

105편의 오월소설 범주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다. 이제 두 개의 그래프¹¹⁾를 제시한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비관적) 그래프다. 1980년대 이후 연대별 오월소설의 분포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1980년대 40편, 1990년대 28편, 2000년대 16편, 2010년대 15편, 2020년대(2026년 6월 기준) 7편¹²⁾의 결과를 표시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도표는 우리로 하여금 프랑코 모레티가 강조한 ‘멀리서 읽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1) 구글 AI,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다.

12) 총편수가 106편인 것은 임철우의 봄날(전 5권)이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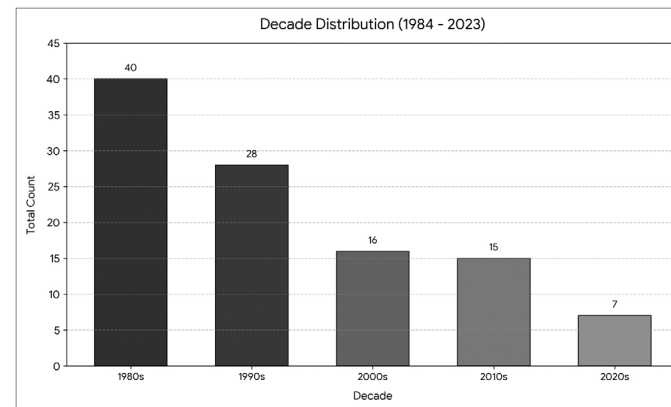


그림 1. 1980년대 이후 연대별 오월소설 분포

그간 대부분의 오월소설 논자들은 『봄날』¹³⁾의 노고,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¹⁴⁾의 형식, 그리고 『소년이 온다』¹⁵⁾의 세계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논했으되, 고사해 가는 ‘오월소설’ 전체의 쇠진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함구했다.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착시 현상이 존재했던 것도 같다. 오월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오월소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광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운운. 그러나 강조해 말하건대 『소년이 온다』는 벌써 열두 해가 지나버린 2014년에 출간되었고(후광은 2024년에 입었지만), 2010년대 내내 출간된 15편의 오월소설 중 한 편에 불과했다. 그러놓고 보자니 그래프는 냉정하다. 그래프가 지시하고 있는 시간

13) 임철우, 『봄날』 전5권, 문학과지성사, 1997~1998.

14)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 사회』, 1988년 여름호.

15)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진행 말미에 오월소설은 없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¹⁶⁾

이번에는 그래프의 배율을 연대별 구분에서 연도별 구분으로 조금 높여 본다. 아래 그래프는 특정 연도에 생산된 오월소설의 양적 추이를 한눈에 보여준다(배율을 좀 더 높여서 월별 추이까지 볼 수 있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5·18을 둘러싼 이행기정의 실현 과정과 오월소설의 흐름 간 비교도 가능할 듯 싶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남아 있다. 정치사나 사회사의 추이가 반드시 문학사의 추이와 나란히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인데, 문학사는 그 나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사건과 일대일 대응하는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문학사상 ‘분단소설’이라 불리는 작품군이 6·25 전쟁 이후 3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은 소설 장르의 리듬이 항상 사건에 대해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시는 그렇지 않다. 이 불일치가 오월문학사의 서술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 중 하나다). 아울러 문학사는 문학장 자체의 논리에 따라 특정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불연속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5·18 이행기정의의 흐름과 오월소설의 흐름을 곧바로 일치시

16) 여담이지만 지난 2년 사이 광주시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한강의 도시 광주, 문학의 도시 광주, 인문도시 광주의 기치 아래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언뜻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돌이켜 보자니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몇 차례의 축하 행사나 기념 행사가 오월소설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이대로라면 오월소설의 생산은 개별 창작자들의 우연한 결심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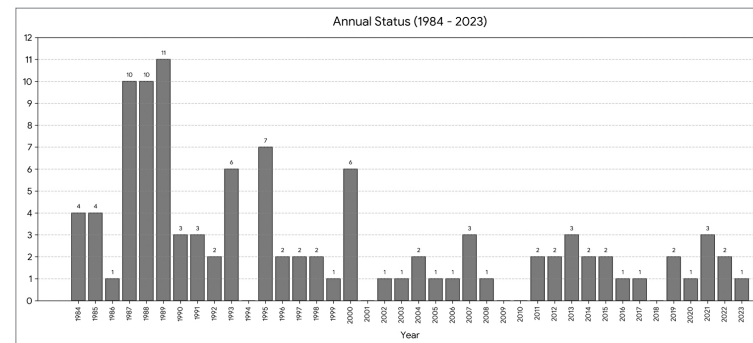


그림 2. 1980년 이후 연도별 오월소설 분포

키려는 욕망을 피하면서 그래프를 읽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87~1989년간 ‘오월소설’의 호황기다. 이 시기는 5·18 이행기정의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알다시피 6·10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 그리고 광주청문회와 5공청문회가 급박하게 진행된 시기다. 1980~1983년간의 침묵기 후, 임철우(5편)와 한승원(2편), 윤정모(1편)가 겨우겨우 애둘러 오월소설을 써냈던 1984~1985년이 지나자 1987년부터 3년간 마치 봇물 터지듯 31편의 작품이 생산된다. 막혔던 입은 할 말이 많은 법이다.

이후 오월소설의 생산량은 ‘경향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지만 극적인 것은 1990년이다. 11편으로 가장 많은 오월소설이 발표되었던 1989년의 다음 해임에도 고작 3편의 작품만이 발표된다(이 해가 이른바 ‘보상법’이 통과되던 해라는 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그러나 다시 1993년과 1995년 두 해에 걸쳐서는 13편의 적지 않은 작품들이 발표된다(김영삼 정부 출범, 5·18묘역 조성 발표, 5·18기념재단 설립 등이 이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다). 과도한 해석을 피하자면

1990년의 급격한 하향 곡선은 우연 혹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시기는 이제 5·18에 대해 말하고 쓰는 일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행기정의에 있어 가장 극적인 시기였던 1996~1997년(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두환·노태우 투옥, 5·18민주묘지 완공,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국가기념일화, 전두환·노태우 사면 등이 이 시기 주요 사건들이다) 이후 오월소설의 추이다. 이행기정의는 급속도로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월소설의 생산량은 이제 한해에 1~3편을 넘기지 못한다. 한 편도 발표되지 않은 해도 있다. 다만 2000년만 예외적인데, 이 경우 양적인 판단이 아니라 질적인 판단으로 해명이 가능하다. 2000년 즈음에 발표된 작품들은 대부분 장편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¹⁷⁾, 박양호의 『늑대』¹⁸⁾,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¹⁹⁾, 김신운의 『청동조서』²⁰⁾, 정찬의 『광야』²¹⁾ 등이 모두 장편인데, 이는 이 작품들의 집필 시기가 최소한 출판 시기보다 몇 해 정도는 앞선다는 의미다. 장편은 대체로 한 해 동안에 완성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즉 2000년의 예외적 호황은 1996~1997년간 이행기정의 진척의 자장권에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어불성설은 아니겠다. 이행기 정의가

17) 문순태, 『그들의 새벽』, 한길사, 2000.
 18) 박양호, 『늑대』, 평민사, 2000.
 19) 송기숙,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2000.
 20) 김신운, 『청동조서』, 찬샘출판사, 2000.
 21) 정찬, 『광야』, 문이당, 2002.

‘어느 정도’ 실현되고(여러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보훈체제 편입 과정²²⁾에 대해서는 그렇다) 5·18에 대해 쓰는 일이 더 이상은 금기가 아니게 되자, 문학은 5·18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언젠가 다른 글에서 필자는 그것이 문학의 생리라고 쓰기도 했는데, 자리가 확보된 곳보다는 계쟁이 왕성한 곳에서 문학은 서식지를 찾기 때문이다.

경향적 소멸

멀리 읽다 보니 오월소설과 관련하여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가역적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물론 ‘꼼꼼하게 읽기’로 태세를 전환하면 사정이 달라지기는 할 것이다. 오월소설의 향배를 결정할 두 걸작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깃발」²³⁾이 발표된 것은 1988년의 상승기였지만, 임철우의 『봄날』이 발표된 것은 1997~1998년의 하강기였다. 박솔피가 「그럼 무얼 부르지」²⁴⁾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포스트 5·18 세대’의 등장을 알린 것은 2011년이었고, 한강이 급기야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것은 2014년이였다. 한정현이 ‘아카이브형 소설’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5·18을 담아낸 「코코

22) 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엄밀한 언급은 박경섭, 「1·18민주화운동의 보훈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억하기, 연대하기』,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엮음, 심미안, 2025, 참조)
 23) 홍희단, 「깃발」, 『창작과비평』 1988년 봄호.
 24) 박솔피, 「그럼 무얼 부르지」, 『작가세계』 2011년 가을호.

와 교지」²⁵⁾를 발표한 것은 2021년이었고, 손병현이 과감하게도 보훈체제의 어두운 이면을 정면으로 다룬 「민주유해자」²⁶⁾를 발표한 것도 그해였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독파’한다면 오월소설 정전들의 계보는 멀리서 볼 때의 양적 감소와는 달리 그려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잘 그려진 정전들의 계보가 오월소설 전체의 ‘정향적 소멸’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연기시키거나 지체시킬 수도 없다. 멀리서 읽기의 장점이 그것인데, 어떤 범주에 속한 일련의 작품들의 소멸 과정은 꼼꼼하게 읽기로는 판별할 수 없다. 되레 은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된 듯하다. 오월소설의 계보가 영원하기를 바라왔고, 찬란한 작품들이 그 안에서 탄생하기를 바라왔던 우리들의 바람과 달리 오월소설은 비가역적으로 생산력을 상실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로 이행기정의 실현의 불완전함, 보훈체제에 대한 염증을 꼽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누가 이해관계로 복잡해지고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진 광주에 선불리 들이겠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 심지어 물리적이고 심리적이며 절대적이기까지 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역사화는 필연이 된다. 시간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없다²⁷⁾. 역사교육도, 훌륭한 지능을 가진 대뇌도 별수 없다. 문서화된

기억은 남아 있지만 정념이 발생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읽지도 않는다. 독자가 없으니 쓰지도 않는다. 비관적이지만 프랑코 모레티가 그래프에 대해 언급한 몇 문장을 더 옮겨 본다.

책은 읽힐 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양식이 한꺼번에 소멸할 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 양식의 독자들도 한꺼번에 소멸한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25~30년에 해당하는 이른바 세대다.²⁸⁾

모레티는 본인이 그린 예의 그 그래프에서 하나의 소설 양식이 대체로 인기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다른 양식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지는 주기를 산정한다. 그 주기는 25~30년으로, 이른바 한 ‘세대’와 동일하다. 그 주기가 지나면 그 양식의 독자들이 소멸한다. 독자 없는 양식도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²⁹⁾

당위가 시키는 바에 따라 모레티의 논지가 오월소설의 운명과 무관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46년이면 그가 산정한 정상적 장르 존립 기간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지금도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 독자들이 있을까? 정찬의 『광야』를? 송기숙의 『오월의

25) 한정현, 『교코와 교지』, 『문학과사회』 2021년 봄호.

26) 손병현, 「민주유해자」, 『쓸 만한 놈이 나타났다』, 문학들, 2021.

27) 유수의 기억학자들이 ‘기억’을 유사한 방식으로 양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저장기억과 기능기억’, 아비샤이 마갈릿의 ‘두터운 기억과 얇은 기억’ 같은 이항적 개념에서 우리는 활성 기억의 비활성화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감지할 수 있다.

28) 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p.29.

29) 모레티는 12~3년 주기로 일찍 사라지는 예외적 양식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정치소설 장르다. 사건의 위력으로부터 등장했으나 지나치게 직서적이어서 사건의 여파가 사라지면 문학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작품들이 그 장르에 속하는데, 이는 일련의 오월소설에 대해 경고하는 바 크다. ‘오월-리얼리즘-민중’의 도식(홍희담의 『깃발』이 대표적이다)에서 그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다.

미소』를?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세대의 교체와 함께 독자가 사라진 오월소설은 소멸한다. 씹어진다고 해도 의미화되지 않는다. 아무런 개입도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포스트 5·18 시대’의 오월문학

어떤 개입이 가능할까? 이 자리는 흔한 학술대회에서 그렇듯 겉도는 추상적 당위를 역설하기보다 실무적인 대안이 필요한 자리인 듯하다. 이하는 오월소설의 경향적 소멸에 맞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가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역시나 논란은 불가피할 줄 안다.

1. 레지던시 프로그램 : 창작 생태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몇 가지 기념행사나 문학상 운영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문학의 도시가 될 수는 없다. 오월소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이 도시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각종 자료와 장소들을 둘러보고 자유롭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그 좋은 대안이다. 공모를 통해 작품의 시놉시스를 심사하고 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대체로 1년) 주거를 제공한다. 심사위원은 인맥이나 학맥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문인들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부디 그간 여러 지자체들이 보여준 돌려 받기식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광주문학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2. 아카이브 구축 :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오월문학 아카이브와 도서관을 구축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한다. 와중에 오월문학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 적정의 인력과 공간 투자가 필요하다(역시 광주문학관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3. 문학상 : 기존의 아시아문학상, 5·18문학상, 아시아 문학축제 등을 묶어 대규모 국제문학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의 생산이다. 따라서 포상 형태가 아닌 창작지원금 형태의 문학상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박은관 문학상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이 문학상은 최초 시놉시스(혹은 초고) 심사 후 창작지원금(1억)의 절반을 수여하고, 2차 3차 심사를 통해 나머지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국내 유수의 평론가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조언과 수정 요청을 통해 완성된 원고는 전국 배포망 출판사(민음사)와의 협약을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 있게 한다.

4. 발굴하기 : 실제로 1980년 이후 발표된 모든 문학 작품을 전수조사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오월문학 관련 연구나 비평 작업을 통해 채 발굴하지 못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민석의 작품을 예로 들었거니와 이승우(『지상의 노

래』), 이청준(『벌레이야기』), 이창동(『진짜 사나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등 즉각 떠오르는 작품들만 해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오월문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작품 발굴의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창작의 답보 상태에서 기존 작품들의 발굴을 통해 오월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새롭게 의미화 하는 작업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연구지원 사업이나, 학술 용역 수주도 고려해야 한다.

5. 오월문학 담론의 확장 : 주로 연구와 비평 분야에 요구되는 과제
로, 5·18의 3대 가치로 알려진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의 재구성을 통해 오월문학의 시의성과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김혜순의 『피어라 돼지』 오월문학상 수상 거절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오월문학에 대한 기존 관념이 얼마나 편협한지를(오월-리얼리즘-민중) 여실히 보여줬다. 흔히 인류세라 말하는 현재의 지구 상태에 비추어 비인간 권리, 기후 재난, 페미니즘, 성소수자, 난민, 근본주의 테러리즘 등 새로운 아젠다들과 오월문학을 연결시키는 작업 없이 오월문학의 경향적 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나가며 : 퉁커벨

어지러운 글을, 그것도 미완성인 채로 제출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프 한두 개 그려놓고 어수선했던 말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고백하

자면 그래프는 일종의 맥거핀이었다고 이해해 주었으면 싶다. 그래프는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을 지시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그리고 해석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간 오월문학에 대해 합의한 바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은 합의한 바 없는 채로도 오월문학이 그동안 존재해왔다면, 그것은 ‘오월문학’이라는 이 모호하고 연장실체 없는 대상이 우리에게 기성품처럼 던져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연구하고 창작해왔기 때문은 아닐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오월문학은 퉁커벨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대해 발화하고 논쟁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오월문학에 대한 모든 발화는 그래서 수행적 발화다.

‘이행기정의와 오월소설’이 제기하는 문제들

정양주_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김형중 교수가 ‘이행기정의와 오월소설’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는 오월문학(소설)의 범주화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정체되고 있는 ‘오월문학(소설)’이 창작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힙니다.

오월문학이라는 담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광주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고, 문학장 내에서 주로 놓고 있는 입장에서 김형중 교수의 발제를 읽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거칠게 제 생각을 정리하면, ‘오월문학’이 5·18항쟁에 대한 이행기정의(혹은 기억투쟁)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는 여러 한계로 ‘시’를 제외했는데 특히 시인과 시가 선도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는 ‘시인’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발제자와 달리 저는 소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행기정의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온 ‘오월문학’이라는 용어를 학술 담론의 자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범주화 혹은 장르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주의 폭을 조금만 넓혀도 한국문학 전체가 포함되고, 소재로 한정하면 5·18항쟁을 광주와 인근 지역의 10일간의 항쟁 정도로 좁혀 문학적 의미를 제한하게 됩니다.

오월문학의 범주화는 세계사 속에서 68세대문학 혹은 68세대예술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시작하여 1970년대 전성기를 이루지만 자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 시작되는 지역도 있었고 새로운 세대의 유입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미술 등에서 대중적인 흐름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경우도 대중문화에서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월문학은 오월예술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각 장르의 특성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모아 가고, 생산된 예술작품과 그것을 향유한 대중들에게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오월문학의 기준을 정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5·18항쟁을 직간접으로 겪은 세대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도 함께 고려하자는 생각입니다. 10권이 넘는 대하소설들이 대거 창작되고 대중적으로 읽힌 현상, 장시(長詩)의 창작과 유통, 다양한 관점의 역사소설 유행, 문학의 소비가 이례적으로 늘어나 시와 소설이 수만 권씩 팔리는 일이 흔해진 점(대중문화 영역의 음악과 영화도 70년대나 80년대 초와는 확실히 다른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조금 엉뚱한 상상이지만 무협소설과 만화

의 대중적 인기 아래의 선악 구도와 영웅들의 무시무시한 힘은 이전과는 다른 것 아닐까요?)

발제자가 멀리읽기(distance reading) 방법으로 105편의 소설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제시한 의도는 점차 사그라지는 오월소설을 어떤 방법으로 새로 창작하게 하고, 묻혀있는 작품을 발굴할 수 있을 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카이브 구축, 문학상과 국제문학제 등은 꼭 필요한 일인데 광주문학관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새로운 오월문학관(혹은 예술센터) 설립과 함께 고민할 문제이고 통합특별시에서 문화정책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예술 분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함께 논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제자가 제기한 ‘오월문학’의 범주화에서 80년대 이후 주류로 등장한 리얼리즘 논의를 한 축으로 설정하고 ‘광주’라는 말이 빠진 오월문학으로 4.3문학, 여수순천 10.19문학, 대구의 10월문학, 부산 마산의 부마항쟁 등 국가 폭력과 직접 관계된 소재를 다룬 문학은 모두 오월문학으로 범주화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소재의 작품들이 그전에 존재한 것도 있지만 80년대 5.18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거 창작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오월문학관(오월예술센터)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예술 장르들과 함께 논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광주특별시 사이의 모호한 관계 속에 광주의 문화예술 논의는 이중화되고, 파편화되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행정당국과 예술단체가 함께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된 현재는 전남지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연구성과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월예술센터 건립이나 예술단체와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등에 대한 제안을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 작업을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행기 정의와 오월소설」에 대한 토론

정명중_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행사 포스터 상의 애초 제목은 「이행기 정의와 오월문학」이었다. 김형중 선생님의 발표문을 아직 보기 전이기도 했겠지만, 저 제목을 접했을 때 우선 가우뚱했다. 그래서 내심 이렇게 생각했다. “저 연결·조합(‘and’) 형태로 무심하게(혹은 무성의하게!) 던져놓은 듯한 어휘들로부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한 걸까?” 솔직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다만 발표자의 성향이랄까 성정을 놓고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해 향후 문학은 어떠한 해야 한다는 식의 나이브한 선언(당위론)을 주워섬기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었다.

역시 예상 대로였다. 한편 고맙고도, 게다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은 여전히 논쟁적인(내게는 의심스러운!) 용어인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문제 자체를 애써 건드리거나 후벼파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일 것이다. 아무튼 이 글의 핵심은 “오월문학의 범주, 장르판단 여부, 오월문학사 서술”이라는 난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광학적(optical) 은유(현미경적/망원경적)를 바탕으로 프랑코 모레티의 논의를 경유하는 식으로 오월문학(소설)이라는 하나의 사태를 주도면밀하게(입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꽤 인상적이었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논쟁이야 불을 보듯 뻔하겠지만 이 글은 오월문학(소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한 이른바 ‘입법비평(立法批評)’의 단초로 삼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사태를 판별하는 ‘기준[criteria]’들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나 그것을 시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정작 합당한 기준을 내놓으라고 하면 십중팔구 함구하곤 한다!) 한편 ‘쇠퇴’ 혹은 ‘경향적 소멸’을 향하는 ‘오월문학(소설)의 운명’론(論)에도 격하게 동의하거나와 ‘회생(또는 연명)’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입의 방법들(‘레지던시 프로그램’, ‘아카이브 구축’, ‘문학상’, ‘발굴하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글은 발표자의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실상 오월문학이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의 프로토타입이 이 글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 오월문학과 관련해서 ‘소재’나 ‘기능’ 또는 ‘문학성’이라는 내기물을 사이에 두고 아웅다웅하는 식 외에는 딱히 특별한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물론 ‘문학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말이다.

한편 발표자는 ‘나가며’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 합의한 바 없는 체로도, 오월문학이 그동안 존재해왔다면, 그것은 ‘오월문

학'이라는 이 모호하고 연장실체 없는 대상이 우리에게 기성품처럼 던져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연구하고 창작해왔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따지고 보면 오월문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특정한 '실체'와 같은 것일 수 없다는 것, 일정한 정체성의 범주 따위로는 결코 떠안을 수 없는 어떤 가상의 것이자 일종의 '효과'라는 점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로부터 다소 비약적으로 말하는 게 허락된다면, 오월문학이란 합의(그것이 앞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의 산물이 아니라 '요청(postulation)'의 산물이다.

이른바 '요청으로서의 오월문학'이라는 테제 위에서 수행적 맥락들이 출현할 것이며, 아울러 물음의 근본적인 형태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우선 니체를 흉내내서 말하자면 이렇다. “오월문학을 요청하는 자, 그(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 욕망이 궁극적으로 가닿는 지점이 한갓 '문학'이라는 영토(제도)의 시민권(혹은 헤게모니)이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했듯 기껏해야 오월문학에 대해 '소재'나 '기능' 또는 '문학성'이라는 내기물을 사이에 두고 아우다웅하는 행위 하나를 보태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판)의 규칙을 공유하고 묵인하는 한 그것이 아무리 급진적이고 시쳇말로 '신박한 것'이어도 제도(판)의 실존 그 자체를 의문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월문학도 문학이니, 따라서 '문학' 일반의 규칙(문학성)을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자연화된) 인식의 기초 위에서 단 한 발

짝도 옴짝달 짝할 수 없을 게 틀림없다.

이쯤에서 5·18이후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러나 이미 철지난 과거의 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민중문화운동의 실천적 자산들과 실패들을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문예공동창작(오늘날 사적 소유의 관념을 지양하는 커먼즈로서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할 수 있을 테마), 총체극(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이 복합된) 등등의 고안과 실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서 그 미완의 실험들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추앙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산출된 텍스트들을 정전(canon)처럼 숭배하자는 뜻은 아예 없다. 그랬다가는 시대착오적인 잠꼬대 같은 소리가 될 게 분명하다.

대신 당시 실험의 가담자들과 그들이 산출한 텍스트가 놓여있던 '문제계(problematic)'를 '지금 그리고 여기'의 관점에서 탈(재)맥락화하는 사유의 모험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그들이 그 사실을 자각했건 혹은 그렇지 못했건 그들은 어쨌든 '문학/비(반)문학' 또는 '예술/비(반)예술'의 위태로운 경계[critical point] 위에서 온갖 실험들을 감행했고, 조야하고 때로는 어설프지만 궁극적으로 예술(문학)의 '생산·유통·소비(수용)'의 흐름(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광대역의 문제의식을 내장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탓에 그들은 문학·예술이라는 이 제도(자연)를 '상대화'하는 급진적 위치[standpoint]에, 즉 '바깥'에 '잠시나마(!)'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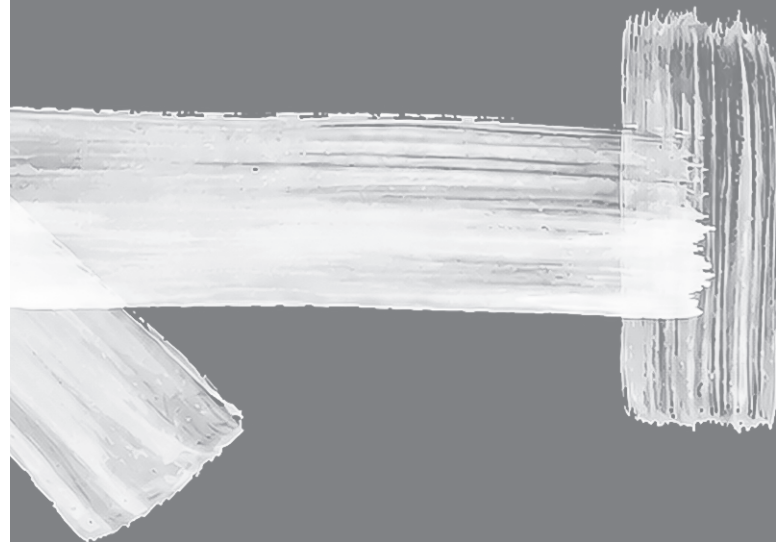
이제 이렇게 묻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요청'하는 오월문학이라는 것 안에는 과연 그러한 급진성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이 물

음은 이른바 하비(D. Harvey)가 말한 바와 같은 ‘기업주의 도시 (entrepreneurial city) 프로젝트’(비단 이곳 ‘광주’만이 아니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도시정체성 논의가 공모·가담하고 있는!)의 상징 자본으로 ‘오월’을 전유(중획)할 수 있는가를 앞다투어(때로는 투기적으로) 따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싶다.

김형중 선생님의 논의에 대부분 공감·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언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개입시키야 한다는 조바심 탓에 이런 식의 해괴한 토론문이 되고 말았다.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선생님의 진지한 고민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 2

광주 도시정체성으로서 오월 문화예술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구도청,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 문화예술이 만들어가는 오월광주의 도시 정체성으로서 기억과 장소

정민룡_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들어가며

이번 포럼에서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논하며 오월 문화예술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오월은 광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가 끊임없이 해석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다. 그렇기에 오월 문화예술이 광주의 도시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개인의 경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나는 학술 연구자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정책 담당자도 아니다. 그렇다고 외부자의 거리감 있는 시선으로 광주를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다. 1980년 5월 이후 세대로서 오월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광주에서 생활하며 문화 현장을 경험해 온 시민이자 문화기획자의 입장에서 오월과 함께 성장한 세대에 속한다.

이 글은 이 글은 학술적 연구에만 기대어 쓴 글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사건과 논쟁, 그리고 문화예술이 만들어 온 다양한 실천을 통해 오월 문화예술이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안이다.

왜 옛 도청과 금남로만 이야기하는가?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을 떠올린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1980년 5월, 광주의 가장 치열했던 역사는 그 공간을 주무대로 펼쳐졌고, 그 공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질문이다.

과연 광주의 도시정체성, 장소 정체성은 정말 금남로에만 존재하는가?

오월을 기억하는 상징 공간은 분명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이다. 그러나 오월의 정신까지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기억은 역사적 장소에서 시작하지만 그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는 문화예술을 통해 기억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만든다. 그리고 그 경험이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때, 오월은 문화가 되고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이룬다.

만약 오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을 특정 장소의 상징성에만 가두어 둔다면 광주는 과거를 기억하는 도시에 머물 수는 있어도 미래를 만

들어 가는 도시는 되기 어렵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화예술은 역사적 장소를 어떻게 공동체의 기억으로 만들고, 오월의 경험을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의 문화로 확장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저는 이 질문을 기억, 장소, 문화예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하고자 한다.

오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역사적 기억으로 만들어 간다.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지만, 기억은 도시를 만든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어떤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도시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은 행정이 부여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는 사회적 기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다움’으로서 도시 정체성은 단순한 이미지나 상징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공간, 공동체의 경험, 사회적 관계, 정책과 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고유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도시환경이 변화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역사적 기억을 끊임없이

재해석 한다. 결국 도시의 문화적 가치는 과거의 유산이라기보다 현재에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적 기억은 도시의 특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사건을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역사적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지가 도시의 성격을 결정한다. 문화예술은 바로 그 공간 기억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의 경우 이 역사적 기억의 중심에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은 예향이라는 오랜 문화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지만, 오늘날 광주를 다른 어떤 도시와도 구별하게 만드는 핵심 경험은 단연 5·18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와 희생은 광주를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로 묶었다. 그 역사적 기억은 문화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오늘날 광주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18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 공동체의 기억이 어떻게 도시문화가 되었는가이다. 사건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도시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간다. 기억이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고, 장소와 결합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전승될 때 비로소 도시의 정체성은 살아 있는 문화가 된다.

그래서 광주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장소와 문화예술을 통해 어떻게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시간을 바꾸지만, 때로는 공간도 바꾼다. 오월은 광주라는 도시의 공간을 단순한 생활의 무대가 아니라 공동체 기억을 담는 장소로 바꾸었다.

1980년 5월의 모든 사건은 광주라는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옛 전남도청은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지였고, 금남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거리였으며, 충장로와 광주역, 계엄군이 진입했던 도심의 골목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였다. 이 공간들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그때의 경험과 감정, 희생과 연대가 축적된 역사적 상징 장소로 인식하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들은 이 공간을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일상의 장소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소와 공간은 다르다. 공간이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장소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축적된 공간이다. 같은 거리라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기억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남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상징적 장소이며, 옛 전남도청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광주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응축한 기념비적인 역사적 상징 공간이었다.

하지만 장소는 역사적 사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 기억은 희미해지고 공간은 일상의 풍경 속에 묻히기 쉽다. 장소가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오월의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내고 해석하여 일상의 장소 기억으로 확장, 변화시키는 문화적 실천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월 이후 광주의 문화예술은 오월의 진실을 알리고 표현하고 기념하는 역사적 장소로 남기는 데 머물지 않았다. 미술과 음악, 연극과 문학, 사진과 영화는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을 반복해서 호명하면서도 그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오월 문화예술은 역사적 장소를 기억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장소의 의미를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장하며 도시정체성을 일깨우는 문화적 자산으로 키워 왔다.

따라서 오월 문화예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고 알린 데 있지 않다. 문화예술은 역사를 기억하게 했고, 집단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의 장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그 장소를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오월 광주의 장소 정체성은 문화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다.

역사적 장소는 사건이 만든다. 그러나 도시정체성은 사건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공동체가 장소의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하느냐에 따라 도시 정체성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수행해 온 것이 문화예술이다.

1980년대 오월 문화예술은 무엇보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지워진 역사를 기록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문화예술의 사명이었다. 민중미

술은 억압된 현실을 시각화했고, 민중가요는 공동체의 기억을 노래했으며, 연극과 문학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예술의 언어로 표현했다. 당시 문화예술은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실천이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의 역할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오월 문화예술은 저항의 언어를 넘어 기억과 치유의 언어로 확장해 갔다. 공연과 전시, 문학과 영화는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화적 장치가 되었다.

오늘날 오월 문화예술은 다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디지털 콘텐츠, 국제예술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은 오월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개인의 기억, 세대 간 인식의 차이, 공동체의 미래를 탐색하는 작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월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이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기억은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할 때 더 오래 살아남는다.

바로 이 점에서 문화예술은 역사적 장소를 도시의 문화정체성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 다. 장소는 기억을 품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그 기억을 현재의 시민들과 미래세대가 다시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역사적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를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해 온 문화예술의 축적 위에서 형성해 왔다.

광주의 역사적 도시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를 통해 공동체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 사회적 기억은 다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장소성을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오월 광주의 문학과 미술, 음악, 공연예술은 오월의 장소를 반복해서 재현하며 도시가 스스로를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구도청과 금남로는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장소 정체성은 광주의 역사적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을 둘러싼 기억과 문화적 실천이 오랜 시간 축적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다.

오월 도시정체성에 있어 구도청 원형 보존과 물충축제 논쟁이 남긴 질문

오월 문화예술이 오늘날 광주의 도시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불거졌던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쟁이다.

현재 옛 전남도청은 복원 사업을 거쳐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하고 있다. 구도청 원형 보존은 이루지 못했다. 대신 절충안인 복원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논쟁은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적 장소를 현재 도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는 원형 보존과 개발이라는 오래된 대립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도시정체성이 하나의 가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역사적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해야 한다는 두 과제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쟁은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역사적 장소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가를 묻는 중요한 계기였다.

도청 복원 논쟁이 장소의 보존 방식을 둘러싼 문제였다면, 2016년 광주물총축제를 둘러싼 논쟁은 역사적 상징 장소의 사용 방식을 둘러싼 문제였다.

2016년 여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제3회 광주물총축제

를 놓고 공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그때 실린 기사에 따르면 <왜 하필 금남로? 물총축제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올해로 3회째 축제 운영진 공개 토론회 마련, 역시나 ‘축제 장소’ 쟁점, 광주 오월 정신 결여, 시민사회 소통 부족 지적, 시민들 금남로 고집 많아.>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광주 오월의 상징적 장소인 금남로에서 물총축제를 하는게 적절한가? 의문을 던지며 오월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충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금남로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도시축제가 갖는 유희와 재미라는 요소만 가지고 역사적 장소성을 비껴갈 수 없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축제를 주최하는 청년들은 물총에 대한 반발, 상징, 금남로의 상징성, 총이니까 안된다는 것은 확대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때 물총축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단지 축제가 갖는 표현의 자유, 전복, 일탈, 유희적인 요소에만 집중하였으며 금남로를 기념비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미쳐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에는 금남로를 문화적 해방의 출구이자 젊음을 표출하는 문화적 해방구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장소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에 대한 존중을 다른 한쪽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공공공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이 단순히 찬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사회는 기억을 지키는 일과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광주의 도시 정체성이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기억을 지키는 것과 현재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 고민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논의하고 있는 문화 정책 주제이기도 하다.

이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상처를 겪은 도시들은 대부분 ‘기억해야 하는 공간’과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공존시킬지 고민해 왔다. 예를 들면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 일본 히로시마,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 같은 곳들인데, 이런 도시들은 역사를 지우지 않으면서 도시의 일상성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광주도 그런 흐름 속에서 5·18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자유와 도시의 활력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옛 도청과 금남로를 넘어, 도시정체성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도시정체성이 특정 장소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역사적 기념물일 뿐 살아 있는 문화가 되기는 어렵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생활방식

이 달라지며, 문화예술 역시 시대에 따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 낸다. 도시정체성도 마찬가지다. 기억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억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해석될 때 도시정체성은 현재성을 갖는다.

오월 이후 광주는 수많은 문화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확장을 시도해 왔다.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보존하는 일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예술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골목축제,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마을,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는 모두 금남로에서 시작된 기억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더 이상 특정한 공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금남로는 출발점이지만, 도시정체성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골목과 광장, 문화공간, 생활권 곳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정체성이 장소를 통해 형성된다면, 이제 광주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오월을 기억하는 공간을 보존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오월의 가치를 현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장소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미래의 역사적 장소성은 누가 만들어 가는가

그렇다면 미래의 장소는 누가 만드는가.

그 답은 행정기관도, 전문가도 아닌 시민들이다. 특히 미래세대가 오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가는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200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문화축제 레드페스타(RED FESTA)의 기획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레드페스타는 단순한 청소년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월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으며,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문화적 실험이었다.

붉은색(RED)은 피와 희생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열정과 생명력, 연대와 저항,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재해석되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기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공연과 전시, 거리문화와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오월을 이야기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축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레드페스타는 오월의 기억이 과거의 의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의 문화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유산은 반복되는 기념행사만으로 계승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감각과 언어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된다. 도시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가 스스로 도시의 기억을 이어받고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갈 때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미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민

주주의를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의 문화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도시’로 확장해야 한다. 그것이 오월이 미래세대와 만나는 가장 지속가능한 방식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 역사 기억과 장소정체성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날 오월은 또 다른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증언과 기록, 기념행사가 기억을 이어가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는 온라인 플랫폼과 짧은 영상, 이미지와 밈(meme)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접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과제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님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518을 중심으로 한 혐오와 진실의 왜곡, 조롱하는 일부 청년들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슈화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이 그렇다.

이미 오월의 역사적 진실은 밝혀졌는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영역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사회적으로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사례는 역사적 기억이 희석 됐기 보다는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문화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이 빠르게 퍼지는 구조도 있다. 이런 사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볼지,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길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회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은 과거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이다. 그것이 디지털 시대 오월 문화예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자.

오월 문화예술은 지난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저항의 예술에서 치유의 예술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예술로 확장해 왔다.

이제 문화예술은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기억을 미래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오월 문화예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억의 보존과 표현의 자유를 대립시키지 않는 일이다. 문화예술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단순한 역사 재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세대와 다양한 공동체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창조적 실천이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만나야 한다. 문화예술은 바로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다. 오월의 기억을 현재의 시민들과 연결하고,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다.

따라서 앞으로 오월 문화예술은 단순히 5·18을 재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오늘의 도시 문제와 연결하고, 기후위기와 다양성, 청년과 돌봄, 공동체 회복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대화하는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 오월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화적 자산으로 살아 움직인다.

맺음말_오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역사적 기억을 도시 문화로 만들 때 살아난다.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옛 도청과 금남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남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옛 도청과 금남로는 오월의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적 장소이며, 광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오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특정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시민들은 역사적 기억을 삶 속에서 이어 간다.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다음 세대에 의해 다시 해석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도시 문화로 발전한다.

오월은 광주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장소 자체만이 아니라 장소가 품고 있는 가치와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현재의 시민문화 속에서 이어 가는 일이야말로 문화예술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말할 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칭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5·18을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5·18의 가치를 시민의 삶과 문화 속에서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월이 광주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며, 앞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남로에서 시작된 기억이 골목과 광장, 문화공간과 생활공동체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할 때 비로소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살아 움직일 것이다. 오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기억을 보존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시민들이 역사적 기억을 문화로 이어 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문화예술은 그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다.

토론문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구도청,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에 대한 토론문

—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실천하는 도시로

김꽃비_ 문화기획자

정민룡 관장님께서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구도청, 금남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발표를 통해 문화예술이 만들어 가는 오월광주의 도시정체성으로서 기억과 장소 이야기를 현장의 경험을 담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특정한 역사적 장소의 보존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5·18은 지난 46년간 광주 공동체(*이는 물리적 의미로서 '광주'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에 의해 함께 기억하고 해석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월 광주'로 호명되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행정적으로 부여되는 슬로건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해 온 역사적 경험과 장소의 기억, 문화적 실천이 축적된 결과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공동체의 반복된 실천을 통해 현재적 가치들을 발생시키며 도시정체성으로서 전환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에서 이 역할을 가장 오래, 깊게 수행해 온 것이 문화예술이었다는 말씀은 이 고장이 ‘예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했던 1980년대 기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실천이자 저항으로서의 문화예술, 1990년대 저항을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억하는 언어로서 문화예술, 오늘날에 이르러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수많은 ‘오월’과 ‘광주’의 이야기를 확산하고 있는 문화예술. 이제 광주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축적된 공간으로서 ‘장소’가 되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월의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내고 해석’하게 만든 문화 예술적 실천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 광주 비엔날레에서 오월 광주를 배웠고, 레드페스타와 전야제를 통해 금남로에서의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은 문화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어쩌면 오월 문화예술은 5·18의 서사에 끊임없이 현재성을 담아 온 가장 중요한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5·18은 역사적 사실로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갖고 있지만 그 의미가 매 시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대에게는 진실규명의 언어로, 어떤 세대에게는 치유와 애도의 언어로, 또 어떤 세대에게는 민주주의와 인권, 차별과 공동체를 다시 묻는 언어로 존재했습니다. 문화예술은 시대의 언어가 되어 기억을 전달했고 이런 실천들이 우리 도시의 정

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월 광주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엇’을 대표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변화의 과정 속 다양한 장소들이 논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발제문에서도 언급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된 갈등, 금남로 물총축제와 관련된 갈등은 광주의 장소 정체성이 명쾌하고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과 조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존을 모색하며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도청 보존 논쟁은 역사적 장소의 물리적 보존과 개발 사이의 충돌을 드러냈고, 물총축제 논쟁은 상징적 장소의 사용 방식과 문화적 자유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밖에도 2018년 제1회 광주 퀴어축제와 관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역 사회에 ‘충격’을 동반한 새로운 질문들을 마구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장소는 다르지만 2024년 조선대학교가 오래된 금기를 깨고 5월에 축제를 열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월에 축제를 해도 되는가(최후의 항쟁일에 꼭 축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표면적 논쟁을 넘어 5·18이 광주의 일상적 시간과 문화적 행위 속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추모의 시간, 대학의 축제문화, 청년세대의 일상성이 한 공간 안에서 충돌한 사례로 이는 오월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여전히 고정된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와 재해석을 필요로 하는 진행형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진행형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장소를 둘러싼 해석이 반복되고 세대와 주체에 따라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의 보존(추모)과 표현의 자유(재해석)가 대립되는 갈등 상황처럼 묘사하지만 어쩌면 현재의 언어를 담는 과정으로, 변화를 위한 쓸모 있는 긴장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사회대전환, 나침반으로서 5·18> 학술대회에서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토론자로 함께한 손어진 활동가는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 Young)이 주장한 ‘사회의 갈등과 투쟁의 요소들을 감추거나 덮어두지 않고 활발히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새로운 공론장의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오월 광주가 지금처럼 살아 있는 역사이자 도시 정체성으로서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가 소개한 것처럼 ‘성가시고’, ‘귀찮고’, ‘어질러진’ 수많은 공론장에서 우리가 보다 용기 있게 부딪힐 수 있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창설 3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광주 파빌리온> 전시를 총괄한 안미희 감독은 광주정신을 ‘무등(無等, equity)’으로 해석하며 ‘문화적, 정신적 중추로 광주의 지역성과 역사를 대변하는 무등’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무등’을 ‘수많은 가치관이 마주하고 교차하는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사고방식의 근간’으로 해석하며 ‘더 넓은 지역의 공동체 의식, 평화 정책, 연

대 방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호이자 방향성’을 갖춘 실천과 공감의 기지국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는 정민룡 관장님께서 이제는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5·18을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5·18의 가치를 시민의 삶과 문화 속에서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오월 광주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기억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실천과 공감을 호출하는 기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상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도시정체성은 상징적 명명 이 아니라 5·18이 남긴 민주주의·인권·연대의 가치가 현재의 삶과 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될 때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대 광주, 오월의 현장들

김서라_미술평론가

정민룡 선생님의 발제를 우선 간략히 요약해보는 것으로 토론문을 시작하려고 한다.

선생님의 발제문은 문화예술이 광주의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정체성을 만들어가며, 그렇기에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위해서는 장소가 한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광주의 상징공간은 금남로와 구도청이었다. 이 금남로와 구도청은 1980년 5월 당시의 현장을 의미한다. 이곳이 광주의 도시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오월 광주의 정체성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재현과 실천방식으로 확장되어왔고, 젊은 예술가들이 오월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도 달라지고 있다. 발제자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가 오월 광주의 기억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미래의 역사 기억과 장소의 정체성은 레드 페스타와 같은 새로운 세대

를 위한 문화행사,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발제자는 오월 문화예술과 광주 도시 정체성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단지 구도청과 금남로라는 상징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광주 도시정체성의 확장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문화예술이 5·18의 역사성을 도시의 일상성과 함께 융합시키며, 이 융합 속에서 오월이라는 광주의 도시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구도청과 금남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은 오래 전부터 오월을 도시의 일상 속에서 기념하고 또 되새기도록 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의 민중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운동일 것이다. 6월 항쟁 이후 미술패와 청년 미술가들에 의해 도시의 거리에 걸개그림과 벽화들이 그려졌다. 미술은 광장과 거리나 작업실과 공장 등 장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미술패가 그린 걸개그림을 구경했고 공장 노동자들도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곤 했다. 광주 시민미술학교, 전남대의 오월제의 실천은 오월의 기억과 가치를 문화예술적 실천으로 이어보려는 시도였다. 광주는 당시 민중미술의 최전선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 민주화와 더불어 운동과 결합한 민중미술은 쇠퇴했고, 작품들은 형태를 바꾸어 명맥을 잇고 있다. 이제는 광장과 거리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대신, 문화예술 축제가 열린다.

발제문에 따르면 오월 문화예술은 오월의 역사적 기억을 전승하

고 그 의미를 확장하고 도시정체성을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오월의 역사적 기억을 전승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1980년대의 문화예술은 스스로 장소, 계급 등 경계를 허물으로써 오월의 저항정신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발제자께서도 문화예술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일상의 장소 기억으로 확장, 변화시키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신 바 있다. 그렇다면 오월을 역사적 기억을 넘어서 현재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방법을 그저 문화예술의 확장성에 맡겨둘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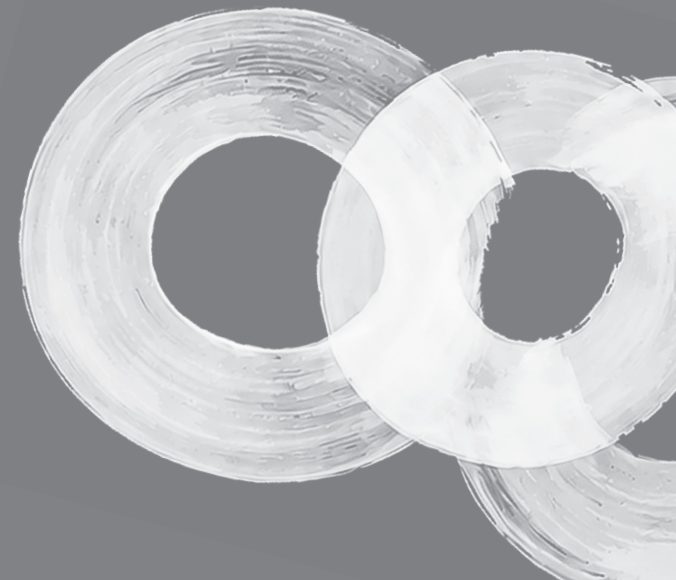
이 질문을 선생님께 여쭙면서, 토론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태고 싶다. 이는 단순히 작가들의 문화예술 창작물에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월 문화예술 기획과 도시브랜딩 차원에서 도시정체성으로서 오월의 문제의식과 방향이 역사적 기억의 전승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월 도시정체성의 확장은 금남로와 구도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무작정 오월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고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월의 보편화는 다른 시공간의 맥락을 추상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추상화된 시공간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실천은 그 힘을 잃게 된다. 곧 ‘오월’을 직접적으로 보편화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오월이 광주의 도시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5·18의 현장이었던 구도청과 금남로로 충분하다. 그러나 광주의 확장되어 가는 도시정체성과 오월을 함께 융합하기 위해서는 발제자 선생님의 언급대로 골목과 광장, 문화공간과 생활공동체와 같은 여러 일상적 장소의 맥락들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오월을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확장하고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기획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월과 관련한 문화예술 기획들이 광주의 지역으로서 정체성, 대도시가 갖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광주전남의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문제와 같이 일상 속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와 맞닿아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히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문화예술 기획들이 제공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오월이 시민들이 이웃들을 돌보는 공동체적 실천을 내포하는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광주의 도시정체성으로서 오월을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기획들은 광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해관계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소가 매개되어야 한다면, 그곳을 장소특정적으로 구체화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도심과 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철도에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감각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광주 반도체팩이 들어오게 되면서 위기에 몰린 광주의 자연생태 문제를 영산강과 서창평야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며, 월곡동의 고려인마을에서 광주의 산단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감각해보는 등 오월 문화예술이 확장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고 넓다.

오월의 현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오월의 현장은 1980년 구도청과 금남로를 넘어서 다양한 시민주체들을 생산하는 지금 여기의 현장으로 현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주제 3

오월사적지 공간의 역사문화
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



오월 사적지 공간의 역사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

전고필_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관광의 시대에서 여행의 시대로

관광의 패턴이 변화하는 순간을 인류는 줄곧 경험해왔다. 토마스 쿡이 1841년 금주동맹의 회의를 위하여 철도 9량을 빌려 570명의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행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서로 떠나고 돌아오는 일이 곳곳에서 전개되어 있었다.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는 구법을 위한 승려의 여행에서 통일신라의 승려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을 남기었고, 후대 수많은 유학자들은 제봉 고정명의 유서석록과 같은 등반기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유람기를 남기었으며,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12차례를 파견했던 조선통신사의 기록이나, 연암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은 청나라 연행에 끼어들어 열하일기와 같은 국외여행의 기록을 상세하게 서술하기도 했다. 그런 시대 14살의 원주 여성 김금원은 남장을 하고 제천의 의림지와 평안도, 금강산,

한양 등을 다녀온 것을 호동서락기로 남기기도 했음을 보면 실로 다양한 여행이 경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근대사회로의 이행에서 개별적인 여행이 더욱 보편화 되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여행이 삶의 필요불가결한 위치로까지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은 기본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 바우처”사업이나, 노동자들의 여행 확대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에서 읽을 수 있다. 한편 오랜 사회의 여행은 또 많은 화폭으로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유람을 기록한 기록화도 스스로 방문하지 못하는 왕의 명을 받아 도판을 통해 가보고 싶은 이상향을 궁궐에서 감상하는 그림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 우리 사회의 여행의 패턴은 풍경 감상이 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중들의 단체여행이라 할 수 있는 화전놀이의 풍습이고, 고대사회로 더듬어가면 화랑도의 풍류와 유람이고, 양반들의 계획 모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도 우리의 여행은 자연의 매력물을 찾아 대형버스를 타고 함께 탐방하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수학여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학생들간의 친교를 비롯해 국토애의 신장, 학습동기의 부여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곡된 여행관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를테면 개인적 취향이 존중되지 않는 점, 편향된 여행 목적지, 숙박과 식음료 부분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 내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편향된 여행 목적지는 과거 설악산권, 공주·부여권, 서울 및 용인자연농원권, 경주권과 제주권으로 접근성과 수용성에 기반한 코스 설정이 마치 국내여

행의 전부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사실이다. 이것이 통칭하는 관광의 문제라고 여긴다. 이문재 시인은 관광과 여행을 “순례-관광업서에 급히 씁니다”라는 시를 통해 철저하게 분류했다. “관광객은 관광을 하고 나서도 관광객입니다. 집이나 일터에서도, 거리를 걸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오로지 두 눈만 살아있어서, 관광만 하고 있어서, 죽은, 죽어 있는 인간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려 하지 않는 언제나 새로운 것만 보려 하되, 오직 눈으로만 소비하는 관광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소풍 온 게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나올 때 그런 것 처럼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아주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비가 없으면 저승도 제대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저승 가는 길도 여비에 따라 모든 게 차별화되는 패키지 상품이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관광객은 남은 돈을 세고 여행자는 더 가야 할 길을 그리워하며 신발을 살핍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해 지는 낮선 마을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저녁 밥상을 마주앉을 수 있을까요”

1993년 유홍준 교수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가 출간되고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오르면서 줄곧 변하지 않던 관광의 패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던 터라 이곳 전남광주권에서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것이고, 자연의 매력물 위주로 관광을 하던 관행이 이 책을 들고 말하지 않는 유적과 마주하고, 감상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여행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건축학, 국문학, 철학 등에서 답사여행을 꾸준히 실천해 왔지만 대중적 붐으로 답사가 일반화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여행자의 주관적인 선택을 가속화할 만한 다양한 일들이 수반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여행사와 항공사를 중심으로 독점하던 여행지의 매력물, 숙박, 식사, 쇼핑, 체험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체험을 통해 공유하는 시기로 변환 되었으며, 개별적 취향이 공동체의 취향으로 확장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에 합류하는 형태의 소그룹 여행이 또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했다. 항공사와 철도, 호텔 등의 예약 시스템이 여행사를 비롯한 Agency에 국한되던 것이 개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정보접근성의 확장과 개방화된 예약 시스템은 여행주체가 마음 먹으면 어느 곳이든 다갈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하나의 장벽이 또 나타났다. 그것은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시대를 의미한다. 갑자기 드러난 이런 신종질병은 “길이 없으면 여행자는 난민이 된다”라는 사회학자 엄기호교수의 말처럼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렸다. 그때 또 하나의 여행경향이 나타난다. 근거리 여행, 웰니스여행, 개별 혹은 가족여행, 취향여행, 힐링여행 등으로. 거기에 이미 각각의 지방정부는 서울로 떠나버린 청년과 고령화되는 농산어촌, 소도시를 구하는 길을 여행에서 찾고 있었다. 다만 그들의 타킷은 여전히 여행을 통한 대량관광에 포커싱을 두고 패키지 상품의 개발과 인센티브에만 열을 올렸다. 그것도 지방의 지극히 제한적인 구역안에서 말이다.

2. 역사 투어리즘의 전개 양상과 5·18 사적지

관광이라는 단어가 대상을 객체화하는 공급자 중심의 언어라면 여행은 행위의 주체를 당사자화하는 참여자의 언어라 할 수 있다. 과거 잘 짜인 일정표에 따라 이동하는 패키지 관광이 일반적이었던 이제는 개별 여행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때로는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행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켰고, 여행자는 더 이상 관광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스스로 설계하는 기획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역사문화투어리즘(History & Cultural Tourism)은 문화관광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란 공간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시간이 남긴 모든 흔적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흔히 ‘터무니’라 부르는 것도 결국 문화이며, 그것은 건축물이나 유물과 같은 물질적 형태뿐 아니라 공동체가 축적해 온 기억과 가치, 정신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역사투어리즘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둘러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공간에 스며든 역사적 기억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현재의 삶과 연결하며, 미래를 성찰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문화적 경험이자 공간을 장소로 확장하는 의미망의 획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는 매우 독특한 역사문화도시라 할 수 있다. 광주는 흔히 ‘의향(義鄕)’이라 불린다. 조선 중종때 놀재 박상이 보여주었던 폐비신씨 복위소라는 상소가 지닌 절의정신에서

부터,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활동에서 비롯된 의향의 전통은 한말 의병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로 다시 꽃을 피웠다. 의로움이라는 정신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광주라는 도시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다. 광주사람들이 어머니의 산이라 부르는 무등산 그중 입석대의 돌올한 주상절리를 가지고도 의향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사에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때문에 광주 곳곳과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5·18 사적지는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기록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 희생과 공동체 정신이 공간 속에 각인된 기억의 장소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언하는 살아 있는 역사 현장이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성찰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공간들이 잘 알려지거나 새롭게 조명되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 대만의 2·28국가기념관,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 독일 베를린 장벽과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장소들은 비극의 현장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배우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여행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고 미래를 성찰하는 참여

자로서 세계시민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5·18 사적지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사적지 활용은 개별 공간에 대한 안내와 해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사적지 각각의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경험하도록 하는 역사투어리즘의 구성은 아직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금남로, 옛 전남도청, 상무관, 광주YWCA, 상무관, 녹두서점 옛터,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다. 학생들의 저항에서 시민들의 연대로, 공동체의 형성과 희생, 그리고 기억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여행자는 각각의 장소를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공동체와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몸으로 따라가며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역사투어리즘은 공간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며, 결국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또한 5·18 사적지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여행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 광주의 예술과 음식, 시장, 골목, 문학, 음악과 결합한다면 훨씬 풍부한 문화여행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오월의 기억은 광주의 문화예술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여행자는 도시 전체를 걸으며 민주주의와 일상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된다. 역사가 과거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역사투어리즘이 지향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결국 오월 사적지는 단순히 보존되어야 할 유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자산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적지(광주 30, 전남지역 30)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각각의 공간을 하나의 서사로 엮고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사투어리즘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개별적 공간을 의미망이 획득된 장소로, 장소를 기억으로, 기억을 경험으로, 경험을 미래의 가치와 실천력의 동인으로 확장하는 일, 그것이 오월 사적지가 지향해야 할 역사투어리즘의 새로운 방향이라 할 것이다. 사실 2024년 10월 10일 한강작가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동호라는 소년을 통해 5·18이 새롭게 조명되고, 연이어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광주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의 증표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광주에 대한 나름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다음 해 5·18때 광주방문의 권유와 역사적 상흔을 찾고자 하는 밈 현상이 있었다는 것도 상기해 볼 일이다.

3. 오월을 읽는 다섯 가지 길

(오월 사적지 역사투어리즘의 방법론)

역사는 기억과 기록으로 남는다. 기억은 입의 말이다. 즉, 구술은

입과 입을 거치면서 확장되고 커지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기록관 맞은편은 충장로다. 김덕령장군의 시호를 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임란의 의병장이자 조선의병의 총사령관인 그가 역모의 모함을 받고 장살형으로 29살에 죽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그를 덕령이라고 불렀다. 죽음의 나이를 퐁퐁 묶어두고, 스스로를 그에 빗대어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하니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를 통해 이어왔다. 1974년 묘지이장을 위해 378년만에 파묘를 했을 때 그의 시신이 육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입말의 힘이 한 사람의 생애사의 비운에 있어 시대를 초월해 현전화한다는 것을 의미함이다. 이런 구술이 기록의 세계로 넘어왔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누군가는 영상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지만, 가장 깊이 남는 역사는 결국 그 장소를 직접 걸으며(순례) 만나는 역사이다. 공간은 시간을 품고 있고, 시간은 사람들의 삶을 품으며 문화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투어리즘은 단순히 유적을 둘러보는 관광이 아니라 공간 속에 축적된 시간과 사람사이의 인과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남아 있는 오월 사적지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유적이 아니다. 전남대학교 정문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상무관, 광주YWCA, 국립5·18민주묘지는 각각의 장소가 하나의 역사적 장면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오월 역사투어리즘

은 어느 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장소와 장소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이어갈 때 비로소 하나의 역사탐방여행이자 순례가 된다.

지금까지의 오월 사적지 탐방은 개별적 관심사에 의한 부분과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나 5·18기념재단에서 양성한 사적지해설사와 민주묘지의 보훈해설사, 5·18기념재단 관계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사건의 개요와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행자는 단순한 설명을 듣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방식이나 취향으로 공간을 해석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오월 역사투어리즘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오월 사적지를 순례하는 다섯 가지 방법과 그 외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간을 따라 걷는 길, 사건을 따라 걷는 길, 도시를 따라 걷는 길, 문학과 영상을 따라 걷는 길, 그리고 사람을 따라 걷는 길이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서로 결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1) 시간을 따라 걷는 오월

역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월 사적지 역시 사건이 전개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걸을 때 가장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같은 장소라도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시간은 공간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8일의 시작은 전남대학교 정문이다.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찾았던 학생들과 이를 물리력으로 막던 계엄군과의 충돌은 광주항쟁의 첫 장면처럼 기억된다. 오늘날의 전남대학교 정문은 평온한 대학 캠퍼스의 입구이지만,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국가권력이 처음 맞부딪친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여행자는 단순히 “첫 시위가 벌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전남대학교 교정인가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교정을 넘어선 대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금남로이다. 이 또한 왜 금남로이고 도청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도시의 혈관으로서 금남로와 심장으로서 도청이 갖는 상징성에 더불어서 광장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외침은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왔고, 시민들의 참여는 다시 공동체의 연대로 확장되었다. 상인들은 물을 내어주고, 시민들은 다친 학생들을 보호했으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금남로는 시위의 공간을 넘어 시민 공동체가 탄생한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변화하였다.

5월 21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광주의 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학생운동으로 인식되던 시위는 시민 전체의 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광주는 국가폭력과 시민저항이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따

라서 시간을 따라 걷는 역사투어에서는 이날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왜 평범한 시민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역사는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남게 된다.

이후 여행은 옛 전남도청으로 이어진다. 도청은 항쟁의 마지막 공간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응축된 장소이다. 시민군은 이곳에서 끝까지 남을 것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시대적 양심에 대한 질문이었다. 여행자는 이 공간에서 승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

시간을 따라 걷는 여행의 마지막은 국립5·18민주묘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의 종착지가 아니다. 오히려 기억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민주묘지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기억해야 하는가를 묻는 장소이다. 묘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여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시계열 투어는 단순히 사적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1980년 5월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시간의 흐름을 여행자가 자신의 걸음으로 다시 체험하는 과정이다. 장소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 걷는 여행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 역사교육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역사투어리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걷는 여행은 과거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각 사적지마다 현재의 광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보여줄 때 역사와 현재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풍경을 비교하고, 당시 증언을 현장에서 들으며, 오늘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여행자는 비로소 ‘역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시간을 따라 걷는 오월 역사투어리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다.

2) 사건을 따라 걷는 오월(주제별 역사투어의 구성)

같은 공간이라도 무엇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능선이 먼저 보이고,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숲이 먼저 보이듯, 역사 역시 하나의 시선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월 사적지 또한 하나의 동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건과 기억을 품고 있다. 따라서 역사투어리즘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적지를 새롭게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코스를 다양화하는 차원을 넘어 여행자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오월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새로운 해석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항의 공간’을 따라 걷는 여행이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작은 학생들의 시위였다.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작된 저항은 광주역과 금남로를 거쳐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이 코스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

여주는 여정이다. 여행자는 단순히 시위가 벌어진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대의 부름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만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교과서 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들이 몸으로 실천했던 가치였음을 이해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 국가폭력과 희생의 공간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무장헬기의 집중소사를 받은 전일빌딩 일대와 옛 전남도청 주변, 금남로, 송암동, 주남마을 등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시민들의 희생이 집중되었던 장소들이다. 이 코스는 자극적인 비극 체험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시민에게 행사한 폭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전일빌딩에서 확인된 탄흔은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발포의 실체를 공간 속에 남겨놓은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여행자는 총탄의 흔적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는 시민 공동체를 만나는 여행이다. 오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립에 주목하지만, 광주의 진정한 힘은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에서 나왔다.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주먹밥을 건네던 이야기들은 세계 어느 민주화운동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은 충성과 희생만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눔과 연대, 돌봄의 정신을 기억하는 장소로 해석되어야 한다. 역사투어는 비극을 소비하는 여행

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발견하는 여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최후 항전의 공간이다. 옛 전남도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군이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계엄군의 재진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선택은 오월 정신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곳에서 해설은 영웅담을 만들어내기보다 당시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투어리즘은 정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여행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기억과 계승의 공간이다. 국립5·18민주묘지는 항쟁이 끝난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묘역에 잠든 수많은 희생자는 단순한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현재까지 이어준 시민들이다. 따라서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일은 묵념으로 끝나는 의례가 아니라 왜 기억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민들이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삶을 연결해 보는 교육의 장이 될 때 비로소 묘역은 살아 있는 역사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중심의 분류는 다시 인물을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 광천동 들불열사와 윤상원열사의 삶을 따라가는 길, 박관현열사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길, 전옥주님의 방송 활동을 따라가는 길, 시민군의 이동 동선을 따라가는 길, ‘나의 이름은 임대운’이란 저서를 쓴 데이비드 돌린저와 같은 평화봉사단의 길,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생명을 지켜냈던 공간을 찾아가는 길 등은 모두 하나의 독립

된 역사여행이 될 수 있다(공무원들의 연수중 장성의 아곡 박수량의 백비를 방문하듯). 기존의 사적지 안내의 문법이 장소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역사투어리즘은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공간을 읽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제별 투어는 교육 대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초·중등 학생에게는 공동체와 나눔을 중심으로 한 ‘주먹밥과 나눔공동체의 길’을, 대학생에게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항쟁의 길’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를 성찰하는 ‘민주행정의 길’을,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세계 민주주의 운동과 연결하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의 공간이 방문자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오월 역사투어리즘이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하다.

결국 사건을 따라 걷는 여행은 하나의 오월을 여러 개의 오월로 읽고 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 시민연대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인권의 역사, 제노사이드라는 비극적인 국가폭력의 역사는 서로 다른 층위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다. 오월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겹쳐진 집합적 기억이며, 역사투어리즘은 그 기억을 여행자의 삶 속으로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도시를 따라 걷는 오월(접근성 중심의 역사투어)

역사투어리즘은 많은 사적지를 방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나라, 한 도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게 하느냐에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월 사적지는 광주와 전남지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지만, 도시의 형성과 생활권을 따라 하나의 역사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투어리즘은 사적지를 단순히 연결하는 동선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을 함께 이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답사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장소를 둘러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행의 흐름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천천히 걷고, 머물고, 경험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역사공간은 빠르게 소비하는 관광보다 천천히 걸으며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며 기억을 되새기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오월 사적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접근성 중심의 역사투어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남로와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코스이다. 오래전 광재구 시인은 다산초당 가는 길이라는 시속에 “지금은 하와이 혹은 파블백이라 흔히 불려지는/본격적인 개장식의 땅이네/버스는 이제 빛고을 광주에 닿게 될 것이네/그대는 우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금남로로 가는 길을 물어 한동안 이 길을 걸어도 좋네/이 길은 정면으로 보이는 무등의 모습과 함께/스스로 이 땅의 사랑과 희망의 거름이라 믿어 온/이곳 빛고을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과 함께 닦아 온/사랑하는 오월의 길이라네/그때 그대는 이 길 위에서/몇 분의 기도와 묵념과 한국 근세사의/한 뜨거운 상념의 시간을 지녀도 좋을 것이네” 라고 읊었다. 이 일대는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 광주YMCA, 광주YWCA, 옛 적십자병원, 녹두서점 터, 광주문화방송 터 등 주요 사적지가 도보권 안에 밀집되어 있다. 이 구간은 도보로 이동할 때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불과 수백 미터의 거리 안에서 5월항쟁 이전의 역사, 5월 학생들의 시위, 시민들의 참여, 계엄군의 발포, 시민의 분노와 저항활동, 시민군의 활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도보 여행은 도시의 일상을 함께 만나는 장점도 있다. 여행자는 금남로를 걸으며 오늘 광주 시민들이 도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충장로의 상가를 지나며 젊은이의 활력을 느끼고, 대인시장과 양동시장에서 조금은 들어가면서도 옛것을 붙들고 있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오월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광주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와 현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투어리즘의 특징이다.

접근성 중심의 투어는 여행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담양지역의 명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국립5·18 민주묘지와 결합된 코스를 제시할 수 있다. 경전선을 타고 목포로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목포와 해남과 영암 등을 통하면서 광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KTX송정역이나 광주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상무대 옛터인 5·18자유공원과 기념재단, 들불야학 옛터 등을 거쳐 금남로 일원으로 진입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고려한 코스 개발도 중요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을 마련하는 것은 역사투어리즘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치인 만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관광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공정여행 혹은 착한여행이다. 오월 사적지 역시 역사 공간만 둘러보고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카페와 서점(五月書架), 문화공간, 전통시장, 예술공방 등을 함께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음식과 예술, 생활문화를 함께 경험하면서 도시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적지를 안내하거나, 추천 코스를 제안하고,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개별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줄 것이다. 증강현실(AR)을 통해 과거의 거리 풍경을 현재의 공간 위에 구현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여 당시 사진과 증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사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다국어 음성해설은 외국인 방문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

운 도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접근성 중심의 역사투어는 ‘얼마나 많은 장소를 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며 깊이 이해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현대 관광이 추구하는 체류형 관광, 관계형 관광, 감동 관광, 경험 중심 관광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광주를 찾은 여행자가 오월을 이해하고, 원도심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고, 지역의 문화를 경험한 뒤 다시 광주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역사투어리즘은 단순한 관광상품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접근성 중심의 역사투어는 사적지와 사적지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도시와 지역사람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광주의 일상과 오월의 역사가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때, 여행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동시에 광주라는 도시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앞으로 오월 역사투어리즘이 지향해야 할 도시적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4) 문학과 영화를 따라 걷는 오월(서사가 이끄는 감성 역사투어)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낸다. 역사가 사건의 전개를 설명한다면 문학은 그 사건을 살아낸 사람들의 감정과 고통, 희망과 절망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역사투어리즘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머문다면 여행자는 사건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공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사건 속 인물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오월 역

사투어리즘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해설의 문법이 될 수 있다.

광주는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낳은 현대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이다. 소설과 시, 노래와 연극, 미술과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월을 기록해 왔다. 따라서 오월 사적지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학과 예술을 읽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여행자가 책을 들고 거리를 걷고, 시를 낭송하며 광장을 지나고, 노래를 들으며 묘역을 찾는 순간, 사적지는 단순한 역사 현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를 살아낸 소년 동호(실제 인물 문재학)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국가폭력이 한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여행자는 소설 속 인물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실제 사적지와 연결하여 걸을 수 있다. 옛 전남도청을 찾았을 때 작품 속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고, 금남로를 걸으며 소년들의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생각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성찰하게 만든다.

문학작품은 허구이지만 그 허구는 역사적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인술하는 이는 연도와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설의 한 장면을 함께 읽고,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는 더 이상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관찰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야기 속 인물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참여자가 된다. 몇해전 광주의 시티투어를 연극과 공연의 관점에

서 진행했던 경험을 일회성으로 두지 않고 더 가다듬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너와 나의 5·18 이란 저서에서 한순미교수가 언급한 공선옥작가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나 이창동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던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역시 중요한 문학투어 자산중 하나이다. 5월 항쟁 이후 살아남은 한 소녀의 상처를 통해 오월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트라우마를 담아냈다. 이러한 공명은 항쟁의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오월은 현재의 역사로 다가온다. 작품 속 주인공이 품고 살아야 했던 침묵과 상처를 생각하며 거리를 걷는 일은, 민주주의가 단지 승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언제고 퇴보하고, 다시 진보하며 치유해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시 또한 오월 역사투어리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시는 긴 설명보다 짧은 언어로 시공간의 의미를 압축하여 전달하는 힘을 가진다.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항쟁 바로 직후 광주의 아픔을 가장 강렬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를 5·18민주광장이나 옛 전남도청 앞에서 함께 낭송하는 프로그램은 공간과 언어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임동확시인이 발표한 오월 연작시 또한 오월을 다시 읽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다. 여행자는 시인의 언어를 따라 걸으며 공간을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오월은 노래로도 기억되고 있다. 10여년 전 타이완의 한 극장에서 들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한국

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의 노래를 비롯해 광주천, 광주출정가 같은 노래는 당시 상황과 시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고 또 다독이는 기록이면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문화적 자산이다. 따라서 역사투어 과정에서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함께 소개하고, 여행자들이 직접 노래를 듣거나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도 실현해 봄이 타당하다.

미술 역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자 해설의 언어이다. 민중미술은 오월의 참상을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기록한 예술이었다. 판화, 걸개그림, 사진·영상기록은 언어보다 강렬하게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광주의 문화예술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5·18 기록관과 옛 도청 전시공간과 이강하 미술관을 비롯한 갤러리와 연계한 투어는 역사와 예술을 함께 경험하는 복합문화여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판화와 사진, 걸개그림을 현장에서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은 공간의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 창립정신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고 전 세계적 발신지 역할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을 따라 걷는 여행은 작품을 읽는 사람마다 다른 감동을 느끼듯, 같은 공간을 걸어도 저마다 다른 기억과 해석을 체득한다. 누군가는 소년 동호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문재학열사를 떠올리며, 또 다른 누군가는 한 편의 시를 오래 마음속에 오롯이 간직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역사투어리즘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하나의 역사를 다양한 서사로 이해하는 순간 순례여행의

가치는 더욱 깊어진다.

그런면에서 앞으로의 오월 역사투어는 기존의 해설사만이 아니라 문학평론가와 시인, 소설가, 연극인, 음악가, 오월당사자,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계절마다 오월문학 낭독회와 북투어를 운영하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작품을 읽은 뒤 실제 공간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구축했으면 한다. 그런 운영의 기반은 전일빌딩245와 같은 민간 운영주체나 민간문화단체, 민간 커뮤니티 등이 진행하면 여행자의 니즈와 조응하며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문학을 따라 걷는 여행은 눈으로 보고 되뇌이며 마음으로 기억하는 여행이다. 역사가 공간을 남겼다면 문학은 그 공간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오월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고도 깊게 전하는 언어가 바로 문학이다. 역사와 문학이 함께 길을 안내할 때 오월은 비로소 세계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기억의 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다.

5) 사람을 따라 걷는 오월(증언과 기억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투어)

역사는 결국 사람이 남긴 흔적의 이야기이다.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복원할 수 있고, 기록은 문서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사람의 기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월사적지 역시 건물과 거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뛰었던 사람, 망연자실

했던 사람, 가족을 잃고도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함께할 때 생명력을 갖는다. 그래서 오월 역사투어리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 여긴다.

살아남은 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빛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 2003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장에서 1961년생 이정식 재즈아티스트가 고향이 함평인데 광주의 5·18에 함께 못해서 광주에 바치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광주와 지척인 전주에서 초연을 하겠다고 어나운싱을 하는 광경을 목도한적이 있다. 것처럼 함께한 이들과 함께 못한 이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증언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다양하게 전달해 준다. 여행자가 당시 시민군과 함께 금남로를 걸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힘겹게 버텨온 유가족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46여 년의 세월을 이야기로 만난다면, 그것은 어떤 전시보다도 깊은 역사교육이 될 것이다.

오월은 돌출한 영웅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필부필남이 함께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학생과 교사, 택시기사, 버스운전사, 시장 상인, 의사와 간호사, 기자와 사진기자, 성직자, 주부와 청년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오월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억을 마치 5월 당시 서석고 3학년 학생들이 그때를 담아 “5·18 우리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처럼 각각의 입말들이 기록으로도 남고 타자들에게 전달되는 생동감이야말로 역사문화투어리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다.

예컨데 당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길’을 구성할 수 있다. 광주기독병원과 적십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부상자를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은 전쟁이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의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피가 부족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혈했던 이야기, 병원으로 실려 온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웠던 이야기들은 민주주의를 지킨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또 하나의 방식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길이다. 돌아가신 신복진기자 같은 경우는 문순태소설가의 최루증이라는 단편소설 속에 담겨 있지만 당시 취재기와 사진기자들은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검열과 통제 속에서도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애썼던 그들의 증언과 기록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여행자는 사진 한 장과 기사 한 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여성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투어도 의미가 크다.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부상자를 돌보고,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렸던 수많은 여성들의 활동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니 역사문화투어리즘은 이런 소시민과 여성들의 삶을 함께 소환(물론 당사자의 동의하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는 2024년 12월 남태령에서, 2025년 1월 키세스 시위대가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는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이 된다.

이러한 증언투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다. 항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살아 있는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지금은 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이제 주변의 시민들까지 최대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공간과 증언을 연결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가 특정 사적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그 장소를 직접 경험한 시민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생동감있는 방식의 채택도 필요하다.

그리고 증언투어와 같은 경우는 해설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여행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될 때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 당긴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대화와 참여를 통해 성장하듯이 역사교육 역시 참여 속에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행자가 광주를 떠난 뒤에도 안내해 주었던 시민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용기와 연대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직하게 된다면 그 여행은 성공한 것이다. 오월의 가장 큰 유산을 경험한 사람과 이를 간직해줄 사람에게 두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오월 역사투어리즘은 사적지를 관리하는 정책을 넘어 기억을 계승하는 문화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공

간은 보존하고, 기록은 축적하며, 사람들의 입말은 끊임없이 전승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보았듯이 오월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임을 확인했지 않는가.

따라서 오월을 읽는 다섯 가지 길은 결국 하나의 길로 모인다. 시간을 따라 걸으며 역사를 이해하고, 사건을 따라 걸으며 의미를 발견하고, 도시를 따라 걸으며 삶을 만나고, 문학을 따라 걸으며 공감하고, 사람을 따라 걸으며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길은 각각 다른 출발점을 가지지만, 모두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로 귀결된다.

문학이 활자를 통해 오월을 기억하게 했다면 영화는 영상을 통해 그 기억을 더욱 넓은 대중에게 확산시켰다. 특히 영화는 실제 공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역사투어리즘과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의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시선을 통해 광주를 바라본 작품이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외국인에게 광주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특히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전 일빌딩을 비롯한 광주 시내 곳곳은 영화 속 주요 장면의 배경이 되었으며, 여행자는 영화의 장면과 실제 공간을 비교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화 속 장면 따라 걷기 같은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역사적 사실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를 찾아가는 스크린 투어리즘(Screen Tourism)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를 먼저 감상한 여행자가 실제 공간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사적지를 답사한 뒤 영화를 다시 보면서 역사와 예술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과 영화, 역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는 것이 오월역사문화투어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마치는 말 (오월 사적지 투어리즘의 비전과 운영 주체)

여행은 시대를 반영한다. 산업화 시대의 여행이 단체관광과 패키지 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여행은 개별화와 취향화를 특징으로 한다. 여행자는 더 이상 정해진 일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행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의 주체가 공급자에서 여행자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오월 사적지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역사투어리즘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오월 답사가 교육과 추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억과 공감, 참여가 결합된 역사여행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월의 역사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과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역사이며,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가 주목하는 보편적 유산이다. 따라서 오월 사적지는 단순한 역사현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성찰하는 순례(Pilgrimage)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종교적 순례가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정이라면, 오월 순례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여정이다. 광주를 찾는 여행자는 관광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순례자로 환대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월을 방문하는 문화 자체를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여행문화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행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월 역시 ‘한 번은 꼭 걸어야 할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묘지에서의 추모, 금남로에서의 걷기, 옛 전남도청에서의 성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가 될 때, 광주를 다녀온 경험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다. ‘오월을 걸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오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뜻밖에 조아라기념관에서 5월을 만났습니다’와 같은 자발적인 인증 문화가 확산 된다면, 이는 오월 역사투어리즘의 새로운 밈(Meme)이자 시민 참여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몇몇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오월 관련 사업은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연구와 기록, 교육, 전시를 통한 5월 정신의 세계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중심축을 둔다. 때문에 역사문화투어리즘은 훨씬 더 광폭의 시민 참여와 확산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민간 운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자원봉사자처럼 사회적 공헌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오월 시민 서포터즈’ 같은 조직이다. 현재의 해설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대학생, 청년, 문화예술인, 외국어 가능 시민, 퇴직 교사와 공무원, 오월 당사자와 유가족, 지역 활동가, 일반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행자와 광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책이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내하는 시민 해설사이며, 광주의 얼굴이 되는 문화사절단이다.

시민 서포터즈는 5월의 안내에만 머물지 않고, 여행자의 일정 안내와 지역 문화 소개,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 문화행사 참여, 외국인 통역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화응대, 웹기반 응대와 피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쇼츠나 릴스 같은 콘텐츠 제작과 영상 기록은 오월 역사문화투어리즘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원이 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그간 행정이나 관계기관이 지닌 한계를 넘어 자발성과 진정성,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체제에서 관광과 문화를 통

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재단이나 관광공사가 오월 역사투어리즘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5·18역사문화지원사업단 같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같은 단체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시민 서포터즈의 교육과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국제 민주주의 도시와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 역사 콘텐츠는 5·18 관련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환대를 위한 제 분야를 망라해서 구축하는 것이다.

오월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이제 오월 사적지는 보존해야 할 공간을 넘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을 붙이고, 걸으며 반추해야 할 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광주를 찾고, 걸으며,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광주로 이끄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오월은 광주와 전남의 역사를 넘어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의 순례길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18사적지, 인권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개발 필요

조한이_ 동구문화관광재단 팀장

오늘 토론을 위해 잠시 짬을 내어 5·18사적지를 다시 둘러보았다. 최근에 개관한 구)도청과 상무관부터 전일빌딩, 5·18기록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 공간들에서는 특색없는 전시가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지루했다.

필자는 여행을 '신기한 것을 보러 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신기한 것을 보러 가는 일은 삶에 재미와 통찰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일상의 장소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선택한다.

1990년대 다크투어리즘이란 개념이 탄생한 것도,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TV를 통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송출하면서 부터다.

“어찌다가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를 궁금해하며 그 비극의 장소를 실제 보러 가는 행위, 즉, ‘비극의 소비현상’ 다크투어리즘이 탄생한 것이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베를린 유대박물관,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중국 난징학살 기념관 등이 다크투어리즘의 대표 장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산 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가, 세월호 현장이 대표 다크투어리즘 장소다.

이러한 다크투어리즘의 속성으로 봤을 때, 5·18사적지는 다크투어리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고문과 억압 속에서 공포를 느꼈다.

광주는 1999년부터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18현장 26곳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곳에 5·18사적비를 세웠다. 그것을 시작으로 5·18기록관과 전일빌딩, 최근에는 구도청 복원사업까지 마무리하며 5·18사적지를 하나하나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각 공간별 차별성이 없어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성화 될런지 의문이 든다.

5·18에 대한 미천한 학식으로 필자가 이 소중한 5·18포럼에서 토론자로 지목된 것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다크투어리즘 사례 분석을 통한 5·18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을 조사해 보니, 다크투어리즘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장소들은 비극의 현장이 박제화되고 과거지향적인 유산관광형 다크투어리즘 장소에서 벗어나 예술적, 상업적, 오락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심미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공간디자인 기법을 구현하고 있었고, 기존 홍보 수단과 더불어 오락성과 체험성을 강화한 문화적인 방법들을 시도하여 장소를 홍보하고 있었다.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은 교육공간, 상징공간, 문화공간, 여가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교육공간은 다양한 유물의 전시와 역사적 유적지 보존을 통해 과거 비극의 사실성을 극대화하여 전달하고 있고, 문화공간은 대중적인 축제 장소로 활용하거나, 해체주의적 공간연출을 도입하여 장소 고유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었다.

상징공간 및 여가·상업공간은 다크투어리즘 관련 기념물의 일상화 작업과 생활공간 확산 전략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크투어리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평소 관심이 높은 방문객들은 역사성과 사실성, 추모성이 강조된 ‘교육공간’과 ‘상징공간’을 중심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대중들은 심미성과 오락성, 체험성이 가미된 ‘문화공간(축제 등)’을 통해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5·18 사적지가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소유형별로 다크투어리즘의 표적시장을 다르게 설정하여 장소의 성격을 특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다크투어리즘과 관련된 장소는 많다. 전쟁, 이념갈등, 독재정권 대한 항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랍의 민주화운동으로 광주의 5·18사적지는 희소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5·18사적지만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광주는 5·18의 인권도시 브랜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도시 브랜드가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5·18사적지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전략은 인권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과 아트투어리즘(Art Tourism)을 결합해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새로운 관광을 제시함으로써 5·18다크투어리즘만의 차별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영어 Dart는 ‘화살’이라는 뜻이다. 5·18항쟁의 역사가 화살이 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과녁에 꽂히는 순간 광주의 인권도시 브랜드는 파장을 일으켜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영감을 준다는 콘셉트다.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은 5·18항쟁의 정신을 문화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다는 측면에서 5·18정신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으며, 기존 교육적 목적의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외에 예술관광객을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유입함으로써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크투어리즘 장소는 과거의 비극적 기억을 보존하고 죽음에 대한 추모를 기리는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그래서 장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장소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개발 방향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5·18사적지의 장소 활성화 전략은 유산관광형 다크투어리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다크투어리즘은 어둡고 슬프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사람들은 장소 방문을 꺼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평소 생각해 왔던 필자의 5·18사적지의 문화관광형 다크투어리즘 전략을 제안해 본다.

매년 창작되는 5·18예술작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광주비엔날레와 5·18기념행사 때 창작한 5·18예술 작품들을 한 데 모아 구)도청과 상무관 전시실에서 상설로 보여주면 좋겠다.

요즘 먹거리 축제가 유행이다.

농심 라면공장이 있는 구미의 라면축제처럼, 고추장의 도시 순창의 떡볶이 페스타처럼, 김밥천국 도시라고 알려진 김천의 김밥축제처럼... 광주에도 주먹밥 축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광주는 학생단체가 묵을 호텔이 부족하다.

적십자병원과 광주교도소를 인권호텔로 만들어 단체 방문객을 위한 숙소 문제도 해결하고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에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5·18의 정신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박제화된 공간은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옛 전남도청 행정안내실에는 오월지기 해설사가 상주하며 5·18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윤상원열사가 산화한 옛전남도청 회의실(강당)을 자유를 상징하는 버스킹공연 장소와 토론회 장소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오월 사적지 공간의 역사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엄수경_ 목요사진 대표

「오월 사적지 공간의 역사투어리즘의 가능성과 방향」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발제자는 오월 사적지를 개별적인 추모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역사문화 네트워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광에서 여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시간을 따라 걷기, 사건을 따라 걷기, 문학을 따라 걷기 등 다양한 역사문화투어리즘 방법론에 관해 의미 있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월 사적지를 각각 설명하는 데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시민들 삶과 민주주의를 하나의 서사로 엮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월 사적지는 많이 찾아오는 곳보다 오래 기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 환대해야 한다.” 이 문장을 조금 발전시켜 오월은 관광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며, 사적지는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의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오월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투어리즘’보다 ‘순례’라는 용어, 하지만 순례는 5·18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어리즘’ 관광이라는 의미와 ‘순례’라는 종교적 용어 사이에 제3의 우리말인 ‘기행’이란 용어를 떠올렸습니다. ‘기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문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용어에 대해 제안해봅니다. ‘역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역사문화예술기행’으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투어리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 용어로서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민들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문화예술기행’과 같은 우리말 개념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기행은 5월 관련 창작물과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월 관련 상설 공연, 오월 상설 전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술’이 중요한가? 5·18은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았고, 문화는 시민의 삶으로 이어졌으며, 예술은 기억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강 『소년이 온다』,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영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의 십자가여」임을 위한 행진곡, 민중미술, 기록사진, 광주비엔날레, 이들은 모두 오월을 기억하게 하는 문화예술입니다. 단순한 부속 콘텐츠가 아니라 오월을 세계와 연결한 가장 강력한 매개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민주주의 문화예술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문화투어리즘은 역사 → 문화를 포함합니다. 역사문화예술 기행은 역사 → 문화 → 예술 → 현재 시민이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류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전에 전남대학교, 금남로, 전일빌딩245, 5·18기록관, 옛 전남도청을 걸었다면, 저녁에는 오월 연극, 오월 음악회, 오월 판소리, 오월 창작뮤지컬, 오월 문학 낭독회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민중미술 전시, 기록사진과 사진전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기행’이 ‘머무는 기행’으로 확장됩니다. ‘기억을 이어 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문학과 영화를 따라 걷는 길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월을 기억하게 한 가장 큰 힘이 문화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투어리즘’보다 ‘역사문화예술기행’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상설 공연과 전시, 문학 낭독회, 창작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오월 사적지를 ‘보는 공간’에서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확장하자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5·18은 역사로 시작해 예술로 기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

확한 인용이라기보다 그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기록이 역사를 남겼다면, 문학, 음악, 미술, 사진, 공연은 그 역사를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살아 있게 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역사를 현재의 감정으로 복원합니다. 5·18 문화예술은 단순한 ‘부가 콘텐츠’가 아니라 기억을 이어 주는 문화적 매개입니다.

“역사문화예술기행은 오월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오늘의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살아 있는 기억으로 전하는 기행이다”라고 정의할 때 ‘예술’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억을 전승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월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사적지와 기록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오월 의미를 전하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기념행사는 하루나 일주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문학작품은 수십 년 동안 읽히고, 좋은 노래는 세대를 넘어 불리며, 좋은 연극과 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관객을 만납니다. 한강『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다시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문학작품 한 편이 오월을 다시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월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적지 보존’과 ‘문화예술 창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역사문화예술기행’을 하나의 ‘역사문화예술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사는 사실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예술은 감동과 공감을 만들어 냅니다. 기행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이

네 요소가 선순환을 이루면, 오월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해석되고 창작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예술기행’은 단순히 용어를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방식 자체를 제안하는 개념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꽃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발제문은 주로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오래 기억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투어리즘은 사람을 오월 현장으로 데려옵니다. 문화예술은 오월을 사람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사적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지만, 기억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표현되어야 이어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학은 오월을 읽게 합니다. 음악은 오월을 부르게 합니다. 미술과 사진은 오월을 보게 합니다. 연극과 공연은 오월을 체험하게 합니다. 영화는 오월을 세계와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월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있는 문화가 됩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꽃을 지속 가능하게 피워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꽃’은 한 번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남겨 다음 계절에도 다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월의 꽃이 다음 세대에도 피어나게 하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지는 역사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역사를 계승합

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꽃이 앞으로도 계속 피어나기 위해서는 역사의 보존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한 기억의 계승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제문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월 사적지가 역사교육의 공간이면서 관광자원이 되는 과정에서, 역사의 진정성과 관광 콘텐츠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상업화, 이벤트화, 소비문화로 흐를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발제자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제에서는 시민 서포터즈를 제안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번째, 광주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발제는 외부 방문객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광주 시민들이 오월 사적지를 일상에서 더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제는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오래 기억하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투어리즘은 사람을 오월 현장으로 데려오지만, 문화

예술은 오월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오월 미래는
사적지 보존과 함께 문화예술 창작을 지속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월은 과거를 기념하는 도시를 넘어,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예술은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